

달아오르는 서울시장 보선... 여야, 대진 윤곽

민주, 이상호 정책 행보·박영선 TV 예능 출연...김동연 영입 가능성도 국민의힘, 나경원 출마선언... '안철수 마이웨이'에 당내 예비경선 가닥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갖춰가면서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상호 의원의 행보가 분주해졌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도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 출연해 남편 이원조 변호사와의 연애사를 공개하

고, 직접 '아침이슬' 노래를 부르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MBC 기자 시절 당시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변절자 아니냐"고 언급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귀에 거슬려 앵커에서 하차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소박한 일상 공개로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미지 정치'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해당 방송분은 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 9.6%를 기록했다. 박 장관은 앞서 BBS 라디오에서 출마 여부를 질문받자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공식화한 이상호 의원은 13일까지 이들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강북 등 일부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고 그 이익 일부를 공공개발 재원으로 쓰는 '도시재생 2.0'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123 서울 하우스'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 여젠다 선점을 나섰다.

그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다. 국회 주변 여의도 일대를 세계적 금융산업 허브로 만들어서 문화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전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후보단일화 합의를 발표하는 등 당내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의 표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전 부총리가 최근 지도부 인사를 접촉했는데, '대안이 없다면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뉘앙스가 감지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선 흥행 우려가 나오자 당내서는 출마 포기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박주민 의원에게도 출마를 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입당 요구를 일축하자 당내 예비경선 흥행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안 대표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내놓으며 강하게 집안 단속에 나선 가운데 그간 단일화에 가장 우호적 목소리를 내온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3일 초선 의원모임 강연에서 "(안 대

표) 중도 지지표를 독점하고 있는 양 이야기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안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등극해 당 밖에서 국민의힘을 폄하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의 지력을 앞잡아봤다간 큰 코 다칠 거라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나 전 의원 역시 이날 출마 기자회견 후 단일화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아 "오늘은 제 말씀만 드리겠다. 답변하지 않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야에 언급을 피했다.

전날 "야권 지지자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까 걱정"이라며 김 위원장 발언을 되치기한 안 대표는 당분간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오전 시장과의 만남도 안 대표 측의 취소로 무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환경특위 "월성원전, 안전관리 심각"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우원식, 김성한 의원 등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輿 "월성원전 방사성 누출 전면 대응"

현장조사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현장조사를 비롯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월성원자력본부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사성 물질 누출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당이 먼저인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삼중수소는 2015년에도 나왔고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조사가 됐든 전문가 토론회가 됐든 전면적인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B·朴 사면, 국민 눈높이서 해야" 최재성 靑 정부수석 인터뷰

최재성 청와대 정부수석은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형량 선고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사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와대가 전날 출입기자단에 최 수석의 라디오 인터뷰 사실을 사전 공지한 점을 고려하면 내부 조율을 거쳐 나온 공식 입장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輿,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방식 추진

불평등 해소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익공유제가 일종의 '기업 손목비틀기'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와 일각의 비판에 맞서 자발성을 강조하며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에 들어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상생 협력에 응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있다.

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중소기업·노동자의 안전망까지 포괄해 이낙연 대표가 구상 중인 '신복지체계'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배달앱 등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양향자 "호남, 유라시아 대동맥 시작점이자 종착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울) 국회의원은 13일 "호남은 한반도와 사베리아 횡단 열차를 잇는 유라시아 대동맥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될 것이며, 호남의 청년들이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 무대로 진출할 기회가 커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이광재 K-뉴딜본부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해 하이퍼튜브 현장감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최고 시속 1200km에 이르는 초고속열차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016년부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하이퍼튜브 속도 시험에서 시속 1019km를 달성하며 하이퍼튜브의 기본설계 원천 기술을 확보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양 의원은 "민주당 K-뉴딜본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이퍼튜브를 미래 모빌리티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집중 육성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며 "단순한 교통·물류 혁명의 차원이 아닌 남북 경험과 유라시아 주도자로의 한반도의 가능성을 한껏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되면 하루 생활권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서울-광주-부산-원주 등의 국내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광주-모스크바-베이징이 하루 생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 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